여수엑스포 성공 개최 한·중 공동지원 어떻게 하나

상하이에 여수 실무팀 파견 연수

관광상품 공동 개발·양국민 상호 방문 장려

'양해각서 이행방안 협의회' 4분기중 개최

2012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2010 상하이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6일 맺은 협력 양해각서(MOU)는 박람회 준비과정을 비롯해 홍보와 마케팅, 협력 프로젝트 개발 등 양 박람회 성공을 위해 서로가 공유해야 할 경험과 추진해야 할 다양한 사업을 망라하고 있다.

3개 항목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MOU 내용에 따르면 우선 2년 먼저 박람회를 개최하는 상하이박람회조직위는 여수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준비 계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하이 박람회 기간 동안 여수 박람회 조직위 직원들은 상하이에서 실무 연수를 받게 되며, 박람회 종료 후 상하이 박람회 조직위는 한국에 대표단을 보내 여수 박람회 조직위와 관련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양 조직위는 특히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관광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국민이 상하이 박람회와 여수 박람회를 방문하도록 장려함과 동시에 상대 조직위의 현지 활동 지원은 물론 박람회와 관련된 이벤트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양 조직위는 또 각 박람회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민간단체 및 관련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 서로 방문토록 해 박람회 준비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양측 박람회에 대한 양 국민의 관심과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협력 프로젝트들의 연내 합의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올 4/4분기 중에 가칭 '양해각서 이행방안 협의회'를 상하이 또는 서울, 여수 가운데 한 곳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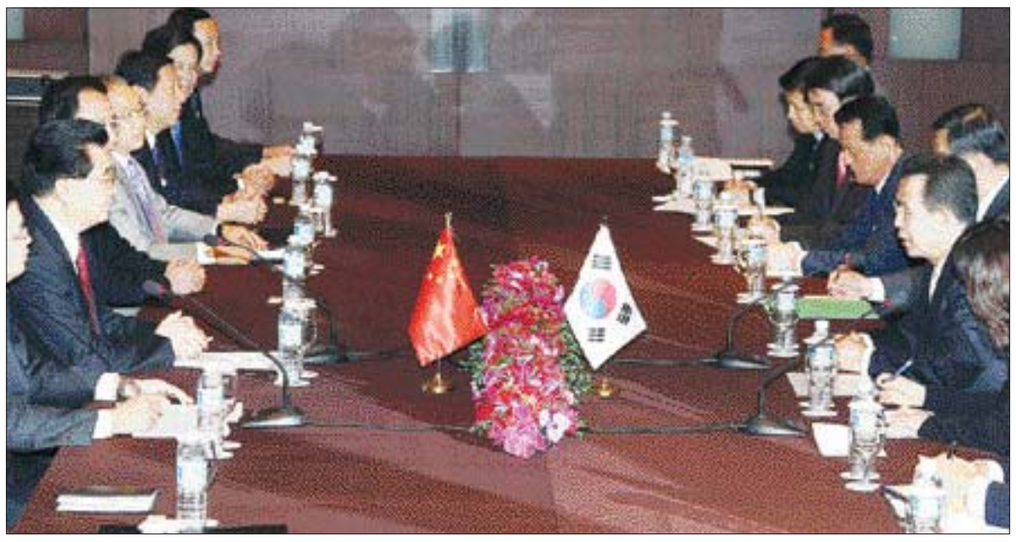
이번 MOU 체결은 지난 3월27일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양국의 협력원칙을 확인하는 1차 MOU에 뒤따른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와 내용을 명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국의 박람회를 한국과 중국이 함께 준비함으로써 지난 5월 양국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첫 결실을 맺는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을 주제로 하는 상하이엑스포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한 여수 엑스포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한 후 "미래, 환경, 공생, 공기와 물 등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인류의 공동 과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 주석은 "나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의 한중협력에 대한 공동인식을 함께 했다"면서 "양국간 세계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광, 경제 분야의 협력 과정에서 한 총리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답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승수 국무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방안, 여수·상하이 세계박람회 협력 문제, 에너지·자원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협력 세계 경제 불안 극복해야"

후진타오, 재계 인사 특별강연서 역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경제 4단체 주최로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와 특별강연회에서 한·중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해 불안정한 세계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후 주석은 "중·한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에서 통하며 경제 상호 관련성이 강해 경제무역협력을 위한 좋은 자연, 인문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중한 양측은 좋은 기회를 활용, 협력을 강화해 복잡하고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중·한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시장은 크고 경제가 계속발전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산업화와 기업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 상호보완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양국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정보통신, 금융, 물류, 환경보호 등 중점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새로운 성장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또한 투자 분야의 확장, 투자 단위의 확대, 투자 모델의 개선을 통해 상호 투자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후 주석은 "우리는 더 많은 한국기업들이 중국 중서부, 동부 지역에 인프라 시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중국투자를 확대하기를 권유한다"면서 "중국정부는 지지와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 주석은 국제경제무역에서 협력 확대도 제안했다.

후 주석은 "양국 기업은 국제기준 제정, 국제시장 개척, 지역일체화 과정에서 토론을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협력체제를 개선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후 주석을 비롯해 양지예츠 외교부장, 천더밍 상무부장,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와 중국 기업인 등 중국측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위 나주 오는데 문제 없을 듯

〈컴퓨터보호위+저작권위 통폐합〉

정보진흥원, 인터넷진흥원과 통합 진로 불투명

한전 자회사 3차 공기업 선진화때 결정 가능성

■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어떻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었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통폐합 대상에 포함돼 향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은 예정대로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실시되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통폐합되면서 이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4개 기관의 향후 진로를 조명해 본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당초 예상대로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통폐합, '콘텐츠 진흥기관'으로 재탄생된다. 게임산업진흥원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콘텐츠 진흥기관은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실시된다.

특히,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참석,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문광부 산하 공공기관은 계획대로 이전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새로운 콘텐츠 진흥기관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비해 인력과 자본이 3배 정도 확대되는데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동반 이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원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물론 이들 기관이 소재한 서울시에서 이전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 마포구 소재)과 통폐합,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관'으로 거듭난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통폐합 기관인 '방송통신진흥기관'이 공동혁신도시로 이전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진흥기관의 향후 진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이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 위원회가 통폐합돼서 탄생되는 기관이다. 당초 2개 기관 모두 공동혁신도시로의 옮기는 것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통폐합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기능 축소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전 R&D 기능 조정**=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개혁안에서 한전의 R&D관리와 관련, 고유기능 외의 부가 기능은 전담 기관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전의 R&D 기능은 한전의 전력산업기반센터 등에서 전담하고 있어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전과 한전 KPS, 한전 KDN, 한국전력거래소 등의 기능 조정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다만 다음달 8일로 예정된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일부 한전 자회사의 진로가 반영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사무처장

김영동씨 임명

민주당은 26일 신임 전남도당 사무처장에 김영동(48) 전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김 처장은 함평 출신으로, 학다리고·한국방송통신대·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새천년민주당 연수국장을 거쳐 (재)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김 처장은 "전남도당이 정권 재창출과 민주당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모범적 지역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